

공동체 소식



사순 제3주일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 사순시기 안내

- 사순시기의 의미 :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사순시기 전례와 기도 : 주일미사 중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으며, '신앙의 신비어'는 '나'양식으로 바칩니다. 또한 자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40분 전에 시작합니다.

■ 2018 사순시기 Rice Bowl 운동

- 안내 :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 기도(미국 주교회의, 까리따스 주관)를 실천합니다.
- 방법 : 사순시기 동안 절제나 극기의 수행을 한 가지 정하고 매일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묵주기도 1단(해당되는 날의 기도)을 바치고, Rice Bowl 저금통에 1달러를 저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실천합니다.
- 봉헌 : 주님부활 대축일 본날 교중미사 중.

■ 맨해튼 공동체 미사

- 미사 : 3/10(토) 오전 11:30

■ 본당 부활 합동판공 고해성사

- 집전시간 : 3/16(금) 저녁7:00에 공동참회예식으로 시작
- 초청사제 : 오마하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 사순 제5주일, 사순 특강

- 미사 : 3/18(주일) 11:00, 미사 강론 중.
- 주례 : 오클라호마 한인성당 박세훈 루이몽플 신부님
-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합동판공고해성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한하여, 고해성사 있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3/4)	117	216	166	122
차 주 (3/11)	123	340	174	177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3/4)	김명은 안젤라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안젤라
		조진환 베드로	고평원프란치스코
차 주 (3/11)	김주연 세실리아	김병철 베네딕도	정예진 한나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정예찬 미카엘

■ 애찬 봉사자

금 주	장보혜, 장유정, 김수연
차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우금
2/25	38 명	208 달러	1,850 달러
김진미, 박태주, 이혁구, 차호섭 (총 4 세대)			

사순 제3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3월 4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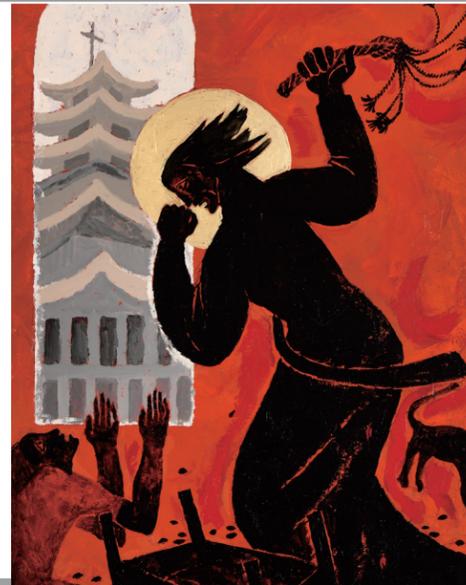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의 살아 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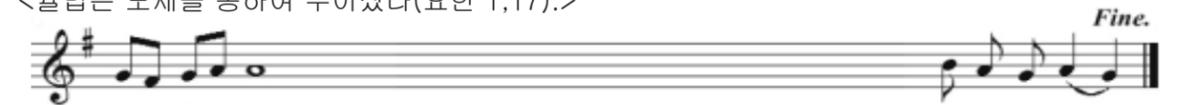
‘예수님의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 성전이 주님께 기도하는 장소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몸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기적으로 만들어낸 하느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 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0,1-17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요한 1,17).>

화답송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2-25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25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생명의 말씀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에서의 성전 정화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첫 작업이 ‘성전 정화’ 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 복음서에서 이 사건의 위치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 거의 첫 장면에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느님과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임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말씀에서도 요한 복음사가의 특별한 의도가 풍겨납니다.

공관복음서 병행 구절에서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6,7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데 반해, 오늘 요한 복음서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하느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는 시편 69,10을 떠올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요한 복음사가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미묘한 변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편 원문에서는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켰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요한 복음사가는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으로 고침으로써, 예수님께서 장차 희생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오늘 요한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 거의 첫 장면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첫 작업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인데, 이는 비단 이천 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유효한 꾸지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향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곧 자본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자본’주의가 되어 있는 현실 안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걷어내고 우리 삶의 중심

은 ‘하느님’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들은 ‘십계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는 ‘인간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더이상 ‘인간 파라오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 기준,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요약되는 절대 기준을 세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고,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처럼(2독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삶 안에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걷어내고 하느님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야코프 요르단스의 ‘예수의 성전 정화’

교리교육

죄와 용서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참회와 속죄로 부활을 준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그분의 희생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거룩한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우리는 성찰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그저 ‘죄인’일 따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은 피하고 싶지만 멀리 있지 않고,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을 갖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함’,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이겠지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1849항)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죄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누가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듯합니다. 죄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죄지은 이들에게 합당한 벌을 줌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세상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방식이겠지요. 하지만 신앙인의 시선에서 ‘죄’를 생각할 때는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먼저 떠올려야 하겠습니

다. 하느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의 용서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느님께 돌아섰을 때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은 분명하지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작은 죄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면 더욱이, 작은 잘못과 유혹이라도 다시금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고해성사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의 은혜로운 순간임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닦아 사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청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교리상식

영성체 후 감실에 인사해야 하나요?

성체를 영할 때 행렬을 지어 나와 성체를 모신 다음에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굳이 감실에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성체 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에 감사드리고 침묵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성체 후에 십자성호를 긋는 것도 불필요한 동작입니다. 미사 전례 전체를 볼 때 이미 미사 도입부에 성호를 그었고, 파견예식 때 다시 성호를 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상식

교리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